



임봉대 | 감신대

1. 들어가는 말

현재 한국에는 약 140만 명의 외국인들이 살고 있다고 한다. 구한말과 일제식민지시대 하와이 이민에서부터 1945년 해방 이후 미군들과 국제결혼을 한 여성들의 해외 이주, 간호사들과 광부들의 독일 진출 및 70년대 이후 활발해진 구미지역의 투자이민 등, 해외 이민자들의 다양한 애환과 경험을 가졌던 한국 사회가 이제는 동남아 지역에서 온 이민노동자들과 탈북자들, 나아가 세계 각국에서 들어오는 이민자들을 맞이하며 그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당면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과의 결혼을 통해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있으며 현재 뜨거운 관심 중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는 다문화 가정을 소외계층으로 분류하고, 종교기관이나 문화단체 등에서

www.kci.go.kr

그들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시행하거나 새로운 방향에 대해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에 대한 태도가 봉사활동이나 구제의 영역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오히려 그들과 함께 건강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보다 건설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한국 기독교인으로서 이민자들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갖기 위해 다문화 사회 속에서의 성경읽기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요청된다.

이 글에서는 다양한 국가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구약성서에 나오는 환대(Hospitality)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한국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구와 구미에서는 이미 세계 제2차 대전이후부터 심각하게 논의해 온 문제이기도 하다. 오래전부터 이민정책을 환대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분석한 그들의 논의가 우리가 다문화 사회 속에서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2. 환대(Hospitality)에 대한 경험과 논의

서구에서 구약성서의 환대와 관련한 관심은 18-19세기에 팔레스타인 여행을 하면서 그들로부터 받은 환대의 경험에서 출발한다. 이런 경험을 통해 환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여행객들은 어떤 형태로든 방문한 지역의 사람으로부터 환대를 받았기 때문에 환대는 여행기를 위한 중요한 주제였다. 고대 팔레스타인에서 환대는 단순히 하나의 개인적이고 사회적이 덕목이 아니라 모든 개인적, 사회적 미덕들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고대 팔레스타인에서의 이와 같은 환대는 서구에서 같은 이름으로 행해지는 환대의 의무 보다 더욱 더 깊숙이 삶의 영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¹⁾ 만일 물과 음식, 그리고 쉴 수 있는

1) H. Clay Trumbull, *Studies in Oriental Life and Gleams from the East on the Sacred Page* (Philadelphia: John

그들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고대 팔레스타인에서 여행자들은 생존하기가 어려울 정도였기 때문이다.²⁾

성서학 분야에서 환대에 관한 논의는 신약성서에서 먼저 이루어졌다. 존 벨 매튜스(John Bell Mathews)는 그의 학위논문에서 “궁극적으로 환대는 거룩한 초대를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속행위에 대한 교회의 이해에 뿌리를 두고 있다.”³⁾고 지적하고, 존 쾨닉(John Koenig)은 신약성서의 환대는 구약성서에 나오는 “유목민의 사회관습”⁴⁾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하였다. 헨리 나우엔(Henri J. M. Nouwen)은 영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성(Spirituality)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환대(Hospitality)로 정의하였다.⁵⁾ 나우엔은 “환대란 손님에게 관심을 베푸는 능력”이라고 말하면서 “지역은 손님들에게 환대를 제공해 주는 주인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⁶⁾

구약성서의 환대와 관련한 용어를 보면, 히브리어 성경에는 영어로 ‘호스피탈리티’(hospitality)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다. ‘호스피탈리티’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에 일반적으로 ‘환대’라고 번역하는데, ‘환대’는 주인이 손님이나 방문자를 호의적으로 받아주고 기쁘게 해주는 손님접대를 말한다. 영어의 ‘호스피탈리티’(hospitality)는 독일어로 ‘가스트프로인드샤프트’(Gastfreundschaft)라고 하며, 현대 히브리어로는 ‘하크나사트 오르힘’(הַחֲנֻסָּת־אוֹרְחִים)이라고 하지만 이와 똑 같은 표현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나

Wattles & Co., 1894), 73f.

2) Victor H. Mathews and Don C. Benjamin, *Social World of Ancient Israel 1250-587 BCE*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lishers, Inc., 1993), 82.

3) John Bell Mathews, *Hospitality in the New Testament Church*, Th.D. Dissertation, Princeton University, 1964, iii.

4) John Koenig, *New Testament Hospitality: Partnership with Strangers as Promise and Mission*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5), 18f.

5) Henri J. M. Nouwen, *Reaching Out: The Three Movements of the Spiritual Life* (Garden City: Doubleday and Co., Inc., 1975), 47.

6) Henri J. M. Nouwen, *The Wounded Healer* (New York: Doubleday, 1979), 89f.

오지 않는다.. 그렇지만 구약성서에 특정한 ‘환대’ (Hospitality) 개념이 없다고 해서 사회문화적 실재의 존재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고대 팔레스타인에서 환대는 삶의 근간을 이루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요소였다는 것과 구약성서에서도 환대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관습으로 인식되고 있다.

먼저 환대와 관련한 대표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창 18:1-8에서 주인과 손님 사이에 오고가는 초대와 응답, 접대 제공과 동의 등을 위한 적절한 표현들로 무엇이 있는지 보고자 한다. 그리고 창세기 19장과 사사기 19장의 예를 통해 왜 환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는지, 그리고 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 창세기 18장 1-8절

창세기 18장은 문학비평적으로 19장 38절까지 J자료에 속한다. 이 안에는 본래 독립적이었던 다수의 전승 자료들이 수집되어 있다. 그 중에 18:1-16은 아브라함의 장막을 방문한 세 사람의 방문자에 관한 내용이다. 이 이야기는 그리스 신화인 오디세이에 나오는 내용과 아주 흡사하다.⁷⁾ 그러나 주전 J자료에 속하는 창 18장의 내용을 이보다 후기에 다른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형성된 오디세이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anachronistic) 문제가 있다. 클라우스 베스터만(Claus Westermann)은 이런 점을 인식하고, 고대 중동지역의 문헌을 통해 손님접대와 관련한 내용들과 비교하면서 신들이 인간을 방문한 이야기는 세계 각국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며, 다양한 형태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였다.⁸⁾ 나아가 게

7) Hermann Gunkel, *Genesis* (Vanderhoeck & Ruprecht, 1977), 193f.

8) Claus Westermann, *Genesis 12-36, A Commentary*, trans. by John J. Scullion S. J.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5), 276.

르하르트 폰 라트(Gerhard von Rad)는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이 중요한 덕목이 되었던 시대들이 이런 민담들에 관심을 기울인다.”고 보면서, “이런 동기는 본 민담을 주석하는데 있어서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⁹⁾

베스터만은 창 18:1-16이 구약성경에서 어떤 종류의 하나님 현현에도 속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특별히 1-8절의 이야기는 후손에 대한 약속이라는 전통에 결합된 것으로 본다.¹⁰⁾ 후손에 관한 내용은 10절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손님들의 신적인 능력에 대한 표현과 함께 등장한다. 그런 점에서 세 명의 방문객들에 대한 사전 이해가 전혀 없는 1-8절은 오직 환대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독립된 단위를 형성한다.

창 18:1a וַיֵּרָא אֵלָיו יְהוָה בְּאַלְפֵי מַמְרָא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1a는 명백하게 하나님의 현현과 관계된 말씀이다(창 22:1 참고).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현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1a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언급이 없이 현현만 표현된 독특한 경우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하나님의 현존을 말하는 이 본문은 편집자의 첨가물이라고 보았다.¹¹⁾

1a가 편집자의 해설이 가미된 것이라고 본다면, 나그네들이 아브라함의

9) Gerhard von Rad, *Genesis, A Commentary*, trans. by John H. Marks (London: SCM Press, 1972), 205.

10) Westermann, *Genesis 12-36*, 275. 이에 대해 유대인 학자인 Nahum M. Sarna는 1a가 일반적인 상세한 신현 현의 묘사나 신의 자기 계시가 이어지는 일반적인 형식처럼 보이지만, 아무런 신적 행동이나 제의적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나그네에 대한 환대 자체가 일종의 예배행위가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탈무드에서 “나그네에 대한 환대는 신의 현존을 환영하는 것보다 더 크다”(Shab. 127a)한 말을 인용하였다. Nahum M. Sarna, *Genesis, The JPS Torah Commentary*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Philadelphia, New York, Jerusalem, 1989), 128 참고.

11) 고든 웬햄, 「창세기(하)」(윤상문, 황수철 역) WBC 성경주석 (서울: 솔로몬, 2001), 134. 원제 Gordon J.

장막을 방문하게 된 이야기는 1b에서 실질적으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2절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처럼 처음에 아브라함은 그들이 단지 사람들 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8절까지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10절에 가서야 아브라함과 사라를 방문한 세 사람이 단순한 사람들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는 이미 환대의 관계가 형성되고 난 이후이다.

1-8절에서 우리는 먼저 아브라함과 세 명의 방문객들은 본래 모르는 사람들이었으며, 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경제적 거래도 없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 이것은 환대의 전제되는 조건들과 일치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1b에서 8절까지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낯선 사람들의 방문(1b-2a), 초청과 응답(2b-5), 그리고 환대(6-8절)이다.¹²⁾

1) 낯선 사람들의 방문(1b-2a)

창 18:1b-2a וְהוּא יֹשֵׁב פֶּתַח-הָאֵהָל פָּתַח כְּחַם הַיּוֹם וַיֵּשֶׁא עֵינָיו וַיִּרְא וְהִנֵּה
שְׁלֹשָׁה אַנְשִׁים נֹצְבִים עָלָיו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낯선 사람의 방문은 1b에서 시작된다. 장소는 장막문이고, 시간은 “날이 뜨거울 때”이다. 구약성경은 오늘날처럼 시간을 분초로 나누는 것에 대해 알지 못하며,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는 용어도 없다. 그 대신에 한 날의 특별한 때를 주관적인 체험에 기초하여 표현한다.¹³⁾ 여기서 “날이 뜨거

Wenham, *Genesis 16-50* (WBC 2: Word Books: Waco, 1987).

12) Westerman, *Genesis 12-36*, 276.

울 때”라는 것은 나그네들에게 그들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는 때를 가리킨다.¹⁴⁾ 아브라함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세 명의 낯선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세 사람의 갑작스런 등장은 그들의 방문이 예고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2) 초청과 응답(2b-5절)

창 18:2b וַיֵּרָא וַיֵּרֶן לְקִרְאָתָם מִפֶּתַח הָאֹהֶל וַיִּשְׁתַּחוּ אֲרָצָה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 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브라함은 낯선 세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자마자 달려 나가 몸을 땅에 굽혀 말하였다. 세 사람은 오랜 여행 끝에 피약별 아래에서 갈증과 허기로 지쳐 있었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행동은 그들에게 신속한 도움을 주려는 배려였으며,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은 몸을 땅에 굽혀 청할 만큼 정중하게 그들을 맞이하고자 하였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들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예의를 갖춘 것이다. 낯선 사람이라면 무조건 경계하거나 무시하고 보는 태도와는 다른 모습이다.

창 18:3 וַיֹּאמֶר אֲדֹנָי אֲסִנָּא מְצֹאֵי חַן בְּעֵינֶיךָ אֵלֶינָא תַעֲבֹר מֵעַל עַבְדֶּךָ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13) Nahum M. Sarna, *Genesis, The JPS Torah Commentary*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Philadelphia, New York, Jerusalem, 1969), 128.

14) Westermann, *Genesis*, 277.

아브라함은 겸손한 태도와 함께 지극히 겸손한 말로 그들을 손님으로 칭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을 가리켜 ‘내 주여’ (אֲדֹנָי 아도나이)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은 스스로 ‘당신의 종’ (עַבְדְּךָ 아브데카)라고 말한다. ‘주여’ (아도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말이 아니라, 집주인이 손님을 맞을 때 정중하게 대하는 말이기도 하다. 아브라함은 집주인으로서 손님에게 자신을 ‘종’ 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겸손한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아브라함은 간청을 나타내는 불변화사 ‘나’ (אֲנִי)라는 표현을 ‘임-나’ (אֲנִי-אֵם)와 ‘알 나’ (אֲנִי-אֵל)등,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지극히 정중한 말과 태도를 취하고 있다. ‘임-나’ (אֲנִי-אֵם)라는 표현은 구약성경에서 9번(창 18:3; 20:27; 33:10; 47:29; 50:4; 출 33:13; 34:9; 사 6:17; 삼상 27:5)¹⁵⁾ 밖에 나오지 않는데, 3절의 ‘임-나 마차티 헨 브에네카’ (אֲנִי-אֵם מָצְאָהּ הֵן בְּעֵינַי) “만일 당신의 눈에 호의를 찾았으면”) 같은 똑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는 자신의 말을 호의적으로 들어 줄 것을 간청하는 사람에 의한 공손한 표현양식이다.¹⁶⁾

‘알-나’ (אֲנִי-אֵל)의 경우 ‘나’ (אֲנִי)는 미완료형 동사 ‘타아보르’ (תַּעֲבֹר)가 이어 나오는데 반하여, 아래 4절의 ‘유카흐-나’ (אֲנִי-יִקַּח)는 동사의 권유형과 함께 결합하여 등장한다. 어쨌든 이들은 모두 요구, 경계, 간청을 강조하기 위해 쓰이는 것으로서 언제나 자신이 포함된 표현의 뒤에 놓인다.¹⁷⁾

창 18:4 אָמַר אֲנִי מְעַט-מִים וְרַחֲצוּ רַגְלֵיכֶם וְהִשְׁעֵנוּ תַּחַת הָעֵץ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15) 창 24:42의 경우 같은 표현이지만, ‘임-에스카-나’ (אֲנִי-עֶשְׂקָא-נָא)로 ‘임’과 ‘나’ 사이에 부사 ‘에스’ (עַ)가 2인칭 남성 단수어미와 함께 삽입되어 있다.

16) BDB, 609.

17) 빌헬름 게세니우스, 『히브리어 문법』 (신윤수 옮김), (비블리아 아카데미아, 2003), 464. 원저 W. Gessenius,

창 18:5a וַאֲקָהָה פַּת־לֶחֶם וְסִעְדּוּ לְבָבְכֶם אַהֲרַ תַּעֲבְרוּ כִּי־עַל־כֵּן עֲבַרְתֶּם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유카흐-나’(וַאֲקָהָה)는 이미 앞에서 지적한 대로 불변화사 ‘나’(אֲנִי)와 결합하여 공손함을 나타내는 표현이며, ‘베에크하-’(וְסִעְדּוּ)도 정중한 표현이다. 물론 끝의 ‘하-’(ה)가 권유(cohortative) 혹은 기원(optative)인지, 아니면 강의(emphatic)인지 명확하게 구별하기는 어렵다. ‘유카흐-나’(וַאֲקָהָה)와 같은 형태를 취하지 않은 것은 아마도 권유보다는 간청을 뜻하는 기원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¹⁸⁾

아브라함은 집주인으로서 손님들을 맞이하면서 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였다. 아브라함은 피약별에서 있는 나그네들에게 물을 제공하여 그들의 지치고 먼지 묻은 발을 씻고 그들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떡을 제공하여 원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이런 아브라함의 손님접대 의도는 중요한 손님을 모시고자 하는 유목민들의 관습이었다. 이런 관습은 오늘날 사막에 거주하는 유목민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아브라함이 제공하고자 한 물과 빵은 접대를 위한 중요한 두 가지 요소이다. 히브리어로는 이 두 가지를 ‘메아트-마임’(מַעֲט-מַיִם 약간의 물)과 ‘파트-레헴’(פַּת־לֶחֶם 빵 조각)으로 표현하고 있다. ‘메아트’(מַעֲט)는 ‘소량, 적은, 조금’이란 뜻으로, ‘마임’(מַיִם)는 말과 결합하여 ‘약간의 물’ 혹은 ‘물을 조금’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메아트’(מַעֲט)가 적은 분량을 뜻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소량의 물을 뜻하는 것이라기보다 손님접대에서 겸손

Hebrew Gramma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22)

18) Rebecca Abis Wright, *Establishing hospitality in the Old Testament: Testing the tool of linguistic pragmatics*, Ph.D. Diss., Yale University, 1989, 108, 124.

하게 정중한 표현을 하는 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

‘파트-레헴(פַּת־לֶחֶם)’의 ‘파트(פַּת)’는 פָּתַח(깨다, 부수다, 박살내다)서 유래한 것으로 ‘파편’, ‘조각’, ‘한입거리’ 등의 뜻을 갖고 있다.¹⁹⁾ ‘파트-레헴(פַּת־לֶחֶם)’은 ‘한 조각의 빵’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한 ‘한 조각의 빵’은 성대한 잔치로 변한다. 아브라함은 상당한 양의 빵을 만들고 송아지를 잡아 고기요리를 하여 대접할 만큼 성대하게 접대하였다.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라는 표현은 음식을 먹고 원기를 회복한 후 갈 길을 가라는 뜻이다.

창 18:5b וַיֹּאמְרוּ כֵן תַּעֲשֶׂה כַּאֲשֶׁר דִּבַּרְתָּ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세 명의 낯선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제공한 환대를 받아들인다. 환대를 제공하는 아브라함 정중한 표현으로 많은 말들을 하였던 반면에 환대를 받아들이는 이들은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한다. 주인이 제공하고자 하는 호의적인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뜻이다. 여기에는 아브라함이 말한 것 외에 더 이상 할 필요는 없다는 정중함이 담겨 있다.

아브라함은 손님을 맞이하면서 처음에 말했던 것보다 더 정성스러운 음식을 준비하여 대접하였으며, 손님들은 아브라함이 준비한 음식을 먹었다. 아브라함이 말로는 ‘소량의 물’과 ‘한 조각의 빵’을 접대하겠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성대한 잔치에 버금갈 만큼 많은 양의 빵과 송아지 고기를 대접한 것을 가리켜 사르나(Sarna)는 “이것이 의인의 길이다; 그는 작은 것을 약속하지만 많은 것을 베푼다”(BM 87a)는 탈무드를 인용하였

19) BDB, 837.

다.²⁰⁾

4. 창세기 19장과 사사기 19장

창세기 18장이 환대의 좋은 예라고 한다면, 창세기 19장과 사사기 19장은 환대의 잘못된 예라고 할 수 있다. 특별히 창세기 19장 1-11절과 사사기 19장 10-28절은 문장구성이나 용어의 사용, 그리고 이야기의 전개구조에 있어서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본문상호간의 연구를 통해 환대에 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다.²¹⁾ 이 두 이야기들은 자신들의 마을을 방문한 나그네들에게 베풀어야 할 환대의 관습이 주민들에 의해 얼마나 폭력적으로 파괴되는 지를 잘 보여준다.²²⁾

1) 창세기 19장 1-11절

창세기 19장 1-11절은 창세기 19장 전체의 맥락에서 범죄 - 하나님의 심판 - 구원이라는 도식아래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도성을 멸망시키게 된 악행의 증거로 이해하여 왔다. 지난 수세기 동안 일반적으로 소돔의 죄를 특별히 동성애와 관련하여 이해해 왔다. 그래서 이 본문은 동성애자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할 때 이용되었으며, ‘소돔사람’이라는 영어 ‘sodomy’는 ‘남색하는 자’를 가리키는 속어로 쓰인다.

그러나 미구엘 A. 드 라 토레(Miguel A. De La Torre)가 자신의 창세기

20) Sama, *Genesis*, 129.

21) Susan Niditch, “The ‘Sodomite’ Theme in Judges 19-20: Family, Community, and Social Disintegration,” *CBQ* 44(1982), 376. “창 19:1-11과 사 19:10-30의 상대적인 연대는 이야기 상황과 그것을 둘러싼 개념적인 토대 사이의 비교를 통해 제안된다. 창 19장의 소돔 에피소드는 전통적인 주제를 단순하고도 일방통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사 19-20장의 저자는 주제를 보다 길고 복잡한 이야기 안에서 여러 개의 다른 주제들과 함께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22) Victor H. Matthews, “Hospitality and Hostility in Judges 19,” *BTB* 22(1992), 3; Mark D. Jordan, *The Invention of Sodomy in Christian Theology*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7), 30.

주석에서 지적한 것처럼, 영어에서 ‘sodomy’ 라는 말은 13세기까지 나오지 않았으며, ‘동성애’ (homosexual)라는 영어 단어도 1892년 이후에나 등장한다.²³⁾ 그에 따르면, 초기 랍비 문헌에서도 소돔의 죄와 동성애를 연관시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랍비 문헌에서 소돔의 죄를 동성애로 이해하는 것은 후기에 와서 등장한다.²⁴⁾

그러므로 소돔 사람들의 죄를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동성애와 일치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폰 라트도 “소돔이 지은 죄의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약성서 안에서도 일치되지 않는다”면서 “이사야는 그 특성을 무법 상태로 보았던 것 같고(사 1:10; 3:9), 그에 반해 에스겔은 실컷 먹고 노는 것을 생각하는 것 같다(겔 16:49). 예레미야가 소돔과 관련하여 간음, 헛소리, 회개치 않음에 대해 말할 때(렘 23:14), 그도 동성애를 직접 염두해 두지는 않은 것 같다”며, “환대에 대한 관습의 침해에 관한 고대의 민담이 죄의 소굴로 여겨진 소돔과 이차적으로 관계되었을 수 있다”고 보았다.²⁵⁾

그러므로 소돔의 죄를 단순히 동성애적인 폭력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천사들이 롯의 집을 방문한 것과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와서 소돔을 사건들은 전체적으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환대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²⁶⁾

창세기 19장 1-11절은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1-3절은 천사들의 방문과 롯의 환대에 관한 내용으로 여기서는 그 어떤 특별한 문제도

23) Miguel A. De La Torre, *Genesi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1), 192.

24) 후기 랍비전통에서는 소돔 사람의 죄악을 동성애(homosexuality)로 이해하여 왔는데, 레 18:22,24과 20:13,23과 같은 본문에 근거하여 동성애는 가나안인들의 대표적인 죄 가운데 하나로 여겨졌다. 그러나 유대인 학자인 Sama는 Tosefta Sotah 3:11이하에서 발견된 랍비적 해석인 “소돔 사람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나그네들에게 동성애적인 폭력을 가한 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성음에 들어와 머무는 것을 막고자 했다”는 것을 근거로 동성애를 성적인 행위의 관점이 아닌 환대를 침해하는 폭력적인 수단으로 이해하였다. Sama, *Genesis*, 135 참고.

25) G. von Rad, *Genesis*, 218.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4-11절은 롯의 집에 환대받은 손님들과 그들을 찾아 온 소돔 사람들 사이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이 롯과 그의 집을 방문한 손님들 사이보다, 손님들과 소돔 사람들 사이에서 시작되었다.

본문은 롯과 손님들 사이에 혹은 롯과 소돔 사람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는 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문제는 소돔 사람들이 롯의 그들과 같은 공동체의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데에 있다. 롯은 소돔 성읍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소돔 사람들에게 롯은 여전히 외부 사람이었다. 롯은 나그네로서 소돔에 도착하였고 소돔 사람들은 롯을 나그네라는 관점에서 보았던 것이다.

롯을 방문한 사람들은 소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롯이 아닌 자신들이 주인으로서 맞이해야 할 손님들이었던 것이다. 소돔 사람들의 생각에 롯은 나그네였기 때문에 방문객을 손님으로 맞이할 주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었다. 그러나 롯은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보았다.

창 19:7 וַיֹּאמֶר אֱלֹנָא אַחֵי תַרְעוּ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롯은 소돔 사람들을 형제들이라 부르면서 그들이 환대의 관습을 깨뜨린다고 보았다. 여기서 롯은 소돔 사람들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5절에서 소돔 사람들이 롯에게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 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는 말을 하였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וַיִּרְעוּ אֹתָם) 베나드아 - 오탐이라는 말을 성적관계의 표현으로 이해한 것이다. 전통적으로 소돔 사람들을 동성

26) David W. Cotter, O.S.B., *Genesis*, BERT OLAM, *Studies in Hebrew Narrative & Poetry*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2003), 122.

애자들로 이해한 것은 이와 같은 뜻의 이해를 그대로 받아들여 해석한 탓이다.

여기서 '상관하리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야다' (יָדָה) 동사로, 성적관계를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다(창 4:1, 17; 19:8; 38:26 등등). 그러나 문제는 구약성경에서 남성들끼리의 동성애 행위를 엄금하는 본문들은 동사로 '야다' (יָדָה)가 아닌 '샤카브' (שָׁכַב to lie down)이란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레 18:22; 20:13).²⁷⁾

'야다' (יָדָה)란 동사는 구약성서에서 남녀 간의 성적관계를 표현하는 의미 외에 '알다', '알게 되다'는 뜻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소돔 사람들은 롯의 집을 방문한 사람들을 소돔성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어떤 사람들인지 먼저 알아보려고 하였던 것이다.²⁸⁾ 여기에는 물론 이미 소돔 성에 들어와 살고 있는 롯의 지위를 자기들과 같은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소돔 사람들의 의도가 깔려 있다.

롯은 소돔 사람들을 형제라고 불렀지만, 소돔 사람들은 롯을 자신들과 같은 동족으로 여기지 않았다. 소돔 사람들은 자기들 성에 들어 온 방문객들을 외지인인 롯이 주인이 되어 손님으로 환대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은 것이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창 19:9)

소돔 사람들은 방문객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려고 하였으며, 롯은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보호해야 할 환대의 책임을 다하고자 하였다. 그

27) Wright, *Establishing Hospitality*, 172.

28) 윌클, 179.

러나 소돔 사람들은 이미 자기들의 성에 들어와 살고 있는 롯을 자신들과 같은 수준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롯의 집에 찾아 온 손님들을 맞이한 롯의 환대도 무시하고 침해한 것이다.

2) 사사기 19장 10-26절

사사기 19장도 창세기 19장과 같이 환대의 관습이 파괴된 경우를 보여 주는데, 창세기 19장보다 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다. 창세기 19장에 소돔 사람들의 의도를 잘못 파악한 롯이 자기의 딸들을 손님들을 대신해서 내 주려고 하였지만, 소돔 사람들은 롯의 딸들을 범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롯이 자신들과 같이 주인처럼 행동하는 것에 분개하였다. 반면에 사 19장에는 기브아 사람들이 레위인의 첩을 성폭행하고, 결국 그들에 의해 성폭행을 당한 여인이 죽는 일까지 벌어졌다.

사사기 19장 10-28절에 보면, 레위인이 첩과 함께 가나안 사람 여부스 족속의 성읍인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기브아에 가서 머물고자 하였다. 해가 저물어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었으나 아무도 그들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한 노인이 그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다. 그런데 이 노인은 본래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람이 아니고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 기브아에 거류하는 사람이었다.²⁹⁾ 창세기 19장에서 롯이 소돔 사람들에게 객이었던 것처럼, 이 노인도 기브아 사람들에게는 객이었다.

여기서 베냐민 지파인 기브아 주민들의 나그네에 대한 무관심과 기브아에 살고 있는 에브라임 노인의 환대가 서로 대조되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아브라함 때에 낯선 손님에게 적극적인 호의를 보여 주었던 좋은 환대의 관습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정착민들 사이에서 사라져 가고 있음

29) J. Cheryl Exum, "The Centre Cannot Hold: Thematic and Textual Instabilities in Judges," *CBQ* 52(1990), 427.

을 보여주는 것이다.

노인은 레위인을 손님으로 맞아 발을 씻고 먹고 마시며 쉬도록 하였다(삿 19:21). 그때 사람들이 노인의 집에 몰려 왔다. 창세기 19장에서는 “그 성읍 사람들(העיר) אַנְשֵׁי אַבְרָם 아브라함의 사람들”이라고만 표현하였는데, 사사기 19장 22절에서는 “그 성읍의 불량배들(בְּנֵי-בְלִיעַל) אַנְשֵׁי אַבְרָם 아브라함의 불량배들”이라는 표현을 추가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도덕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삿 19:22)

여기서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는 표현은 창 19:5과 같이 ‘야다’(יָדָה)란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도 기브온 성읍 불량배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동성애적 성적관계였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만일 그들이 성적 관계를 목적으로 레위인을 원한 것이었다면, 왜 집 안에 있던 다른 남자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느냐는 것이다.³⁰⁾ 그러므로 그들의 일차적 관심은 어떤 사람인지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기에 첩이나 종이 아닌 레위인을 만날 것을 요구하였던 것이다.³¹⁾

노인이 레위인을 영접한 것은 환대의 관습을 그대로 따른 적절한 행위였지만, 기브아 사람들은 노인을 기브아 성에 찾아 온 손님을 맞이할 주인의 지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³²⁾ 노인은 자신의 손님접대를 존중해 줄 것을 기브아 사람들에게 요구하였지만, 그들은 노인의 요청을 거절하였으며, 레위인의 첩을 밤새도록 윤간하고 결국에는 죽음에까지 이르

30) Wright, *Hospitality*, 191

31) 윗글, 191.

고 만 폭력행위를 저질렀다. 이러한 폭력성 때문에 그들을 단순히 “그 성읍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고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라고 표현하였다.³³⁾

창세기 19장에서 두 명의 방문을 받은 롯이 소돔 사람들에게 외지인이었던 것처럼, 에브라임에서 와서 거주하고 있던 노인도 기브아 사람들에게는 외지인이었던 것이다. 기브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에 들어 온 방문객을 외지인인 에브라임 노인이 주인으로 환대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은 것이다. 에브라임 노인이 주인으로 손님을 환대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기브아 사람들의 폭력성으로 인해 여인이 희생이 되었다.

필리스 트리블(Phyllis Trible)은 창세기 19장과 사사기 19장의 이야기들은 “고대 이스라엘의 환대 법칙은 오직 남성 손님들을 보호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³⁴⁾ 롯의 경우 손님들이 남성들뿐이었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 딸들을 대신 희생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롯의 딸들이 희생되지는 않았다. 반면에, 에브라임 노인의 경우 레위인 남성뿐만 아니라, 그의 첩인 여성도 손님이었다. 그러나 레위인 첩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결국 익명의 여인은 기브아 사람들의 성폭행에 의해 무참하게 희생되고 말았다.

기브아 사람들의 악행이 소돔 사람들의 행위를 연상시키면서도, 그들보다 오히려 더 악한 일이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환대 관습의 파괴와 잔인한 성폭행이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났다는

32) 타지에서 온 거류민은 성이나 마을에 그 주민들과 함께 살면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는 있었지만(신 24:17-18), 그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주인으로 인정받지는 못했다. 주민들은 자기들의 성이나 마을에 오는 나그네들을 환대할 주인으로서의 자격은 자신들에게만 있다고 보았다. Victor H. Matthews, “Hospitality and Hostility in Judges 4,” *BTB* 21(1991), 15.

33) Mieke Bal의 경우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삿 19:22, 창 19:5 참고)는 표현을 동성애적인 폭력으로 이해하면서 사회적 혼란의 한 양상으로 해석한다. Mieke Bal, *Death & Dissymmetry. The Politics of Coherence in the Book of Judges* (Chicago/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8), 92.

34) Phyllis Trible, “An Unnamed Woman, The Extravagance of Violence,” *Texts of Terror*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4), 75.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었으며 이 일로 인해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졌다. 특히 트리블에 따르면, 한 여인의 성폭행이 결과적으로 600명 여인의 성폭행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삿 21:23).³⁵⁾ 이는 국가 형성 이전의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혼탁한 상황에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³⁶⁾ 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경문화 속에 도시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미덕이 얼마나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환대가 고대 이스라엘의 중요한 사회관습이었지만, 사회적 변화와 역사적 상황에 따라, 특별히 기존의 공동체 안에 새로 들어온 외지인이 손님을 접대할 주인으로서의 위치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 환대의 관습이 침해를 받거나 파괴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5. 환대로서의 이민정책과 다문화 사회

서구 사람들에게 있어서 환대(hospitality)는 일반적으로 매우 제한된 의미에서 실행되었는데, 손님을 접대하는 주인은 친구, 친지, 혹은 드물게는 나그네들이 잠시 동안 방문할 때 베풀어 주는 책임감과 그에 따른 보람의 감정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유럽에서 수십 년 전부터 “이민”의 문제가 정치적인 이슈가 되어 왔다.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국가 재건을 위한 외국 노동자들의 유입과 식민 지배 국가들의 독립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이민정책 등이 시행되어 오다가 1990년대 이후 이민정책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민에 대

35) 윗글, 83.

36) Gale A. Yee, "Ideological Criticism: Judges 17–21 and the Dismembered Body," *Judges & Method, New Approaches in Biblical Studies*, ed. by Gale A. Yee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161.

한 다양한 논의들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이민자들에 관한 문제는 식민지 국가들의 독립에 따른 자국 내 피식민지배자들의 체류 문제, 전후 복구를 위하여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유입된 노동이민자들, 정치적 이유로 인한 망명자들, 그리고 내국인들의 외국인에 대한 반감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얽혀 있다.

이들을 어떻게 처우할 것이냐 하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차원의 환대(hospitality)를 넘어서 국가가 결정해야 할 정책적인 차원의 환대에 관한 문제이다.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경우 짧은 기간 동안 방문하는 여행객들과 단기 체류자들과 장기 체류자들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들을 국가 경제나 정책의 측면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제기된다.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복잡해진다.

미레일 로젤로(Mireille Rosello)는 국가의 이민정책을 ‘환대’(hospitality)라는 개념과 관계시키면서 “주인과 손님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국가와 그 국가에 들어오는 이민자들 사이의 관계를 이론화하는 가장 명백한 방법”이라고 하였다.³⁷⁾ 그는 프랑스 정부의 강경한 이민정책에 반대하면서, 이민자들을 국가 정책의 측면에서 강제로 추방하는 것은 프랑스 국민들이 갖추어야 할 환대의 미덕을 빼앗는 것이라고 보았다.³⁸⁾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는 외국인들 혹은 타지에서 온 사람들은 다른 언어와 역량을 갖고 있는데, 환대는 그들을 주인에게 동화시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표현방식을 존중해 주는 것이다.³⁹⁾ 이러한 환대의 권리는 외국인을 “가족”으로 여기고 자기 가족의 이름으로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한다. 룫과 에브라임 노인의 경우 손님들에 대한 이러한 환대의 권리를 지키려고 하였지만, 문제는 소돔 사람들이나 기브아 사람들이

37) Mireille Rosello, *Postcolonial Hospitality. The Immigrant as Guest*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1), 2.

38) 원글, 29.

자기를 성읍에 살고 있는 롯과 에브라임 노인을 자기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데에 있다.

한국은 공통된 혈통과 영토, 그리고 언어와 문화를 수천 년 동안 이어 내려왔다는 단일민족 사상과 함께 단일민족 사상이라는 인종적 민족주의를 갖고 있다. 순수혈통을 강하게 강조하는 한국의 단일민족 사상은 특별히 일본의 식민지 지배 아래 일본 제국주의의 집합적 동질성에 동화되지 않는 민족적 동질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산물이었다.⁴⁰⁾ 그것이 해방 이후 남북분단과 함께 이분화 되면서 같은 민족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서로 미워하는 특이한 구조를 갖게 되었다. 신기욱은 남한과 북한 사이에 겪는 동족간의 갈등을 사회정체성이론(Social identity theory)의 하나인 '검은 양 효과'(Black sheep effect)로 설명하고 있다.⁴¹⁾

이런 인종적 민족주의가 성서를 읽는 데에도 영향을 주어 성서의 역사 속에 나타난 민족들과의 관계를 인종적 민족주의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었다. 한국의 인종적 민족주의는 일본 제국주의의 집합적 동질성에 흡수되지 않고 독립적인 한국인의 동질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지만, 오늘날 국제화된 시대의 다문화 사회 속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환대나 다문화 가정을 바라보는 시각에 부정적인 장애가 되기도 한다.

39) Jacques Derrida, *Of Hospitalit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0), 24.

40) Gi-Wook Shin, *Ethnic Nationalism in Korea, Genealogy, Politics, and Legac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6), 19.

41) 윗글, 157. '검은 양 효과'(Black sheep effect)는 같은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갈등 관계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연구로, 신기욱 박사는 그룹 내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적대감이 다른 그룹에 대한 적대감보다 더 큰 경우이다. 남한과 북한이 인종적으로 같은 민족이면서도 서로 극심한 갈등과 적대감을 갖는 것을 일종의 '검은 양 효과'라고 보았다.

6. 나가는 말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낯선 사람들의 방문을 받고 그들을 최대한 정중하게 맞이하고자 하였던 표현을 찾아보았다. 아브라함이 손님 입장을 우선시하고 최대한 배려하였던 환대의 관점은 이민정책을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입장에서만 취급하기 보다는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이민자들이 손님으로서 가져야 할 환대의 권리를 고려하도록 한다.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 사람이나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기브아 사람은 자기들의 성읍에 함께 살고 있는 롯과 에브라임에서 온 노인을 자신들과 같은 성읍에 거주하는 가족으로 여기지 않음으로 인해 롯과 노인의 환대를 존중하지 않고 폭력적으로 침해하였다. 이것은 당시의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기브아가 얼마나 혼탁한 사회상을 갖고 있었는가를 보여준다.

이러한 성서적 예들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 점차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 가정들을 낯선 이방인 혹은 소외계층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한 가족으로서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시켜 준다.

7. 참고문헌

고든 웬햄, 「창세기(하)」 (윤상문, 황수철 역) WBC 성경주석 (서울: 솔로몬, 2001). 원저 Gordon J. Wenham, Genesis 16-50 (WBC 2: Word Books: Waco, 1987).

빌헬름 게제니우스, 「히브리어 문법」 (신윤수 옮김), (비블리아 아카데미아, 2003). 원저 W. Gesenius, Hebrew Gramma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22).

Bal, Mieke, *Death & Dissymmetry. The Politics of Coherence in the Book*

- of Judges* (Chicago/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8).
- BDB *Hebrew and English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Francis Brown, B. R. Driver, and C. A. Briggs (Oxford: Clarendon Press, 1978).
- Cotter, David W. O.S.B., *Genesis*. BERIT OLAM. Studies in Hebrew Narrative & Poetry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2003),
- De La Torre, Miguel A., *Genesi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1).
- Derrida, Jacques, *Of Hospitalit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0).
- Exum, J. Cheryl, “The Centre Cannot Hold: Thematic and Textual Instabilities in Judges,” *CBQ* 52(1990), 410–431.
- Gunkel, Hermann, *Genesis* (Vandenhoeck & Ruprecht, 1977).
- Jordan, Mark D., *The Invention of Sodomy in Christian Theology*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7).
- Koenig, John, *New Testament Hospitality: Partnership with Strangers as Promise and Mission*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5).
- Matthews, John Bell, *Hospitality in the New Testament Church*, Th.D. Dissertation, (Princeton University, 1964).
- Matthews, Victor H., “Hospitality and Hostility in Judges 4,” *BTB* 21(1991), 13–21.
- _____, “Hospitality and Hostility in Judges 19,” *BTB* 22(1992), 3–11.
- _____, and Don C. Benjamin, *Social World of Ancient Israel 1250–587 BCE* (Massachusetts: Hendricson Publishers, Inc., 1993).
- Niditch, Susan, “The ‘Sodomite’ Theme in Judges 19–20: Family, Community, and Social Disintegration,” *CBQ* 44(1982), 365–378.

- Nouwen, Henri J. M., *Reaching Out: The Three Movements of the Spiritual Life* (Garden City: Doubleday and Co., Inc., 1975).
- _____, *The Wounded Healer* (New York: Doubleday, 1979).
- Rad, Gerhard von., *Genesis. A Commentary*, trans. by John H. Marks (London: SCM Press, 1972).
- Rosello, Mireille, *Postcolonial Hospitality. The Immigrant as Guest*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1).
- Sarna, Nahum M., *Genesis. The JPS Torah Commentary*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Philadelphia, New York, Jerusalem, 1989).
- Segovia, Fernando F., “Biblical Criticism and Postcolonial Studies: Toward a Postcolonial Optic,” *The Postcolonial Bible*, ed. by R. S. Sugirtharajah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8), 49–65.
- Shin, Gi-Wook, *Ethnic Nationalism in Korea. Genealogy, Politics, and Legac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6).
- Trible, Phyllis, “An Unnamed Woman. The Extravagance of Violence,” *Texts of Terror*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4): 65–91.
- Trumbull, H. Clay, *Studies in Oriental Life and Gleams from the East on the Sacred Page* (Philadelphia: John Wattles & Co., 1894).
- Yee, Gale A., “Ideological Criticism: Judges 17–21 and the Dismembered Body,” *Judges & Method. New Approaches in Biblical Studies*, ed. by Gale A. Yee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146–170.
- Westermann, Claus, *Genesis 12–36. A Commentary*, trans. by John J. Scullion S. J.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5).
- Wright, Rebecca Abts, *Establishing Hospitality in the Old Testament: Testing the Tool of Linguistic Pragmatics*, Ph.D. Diss. (Yale University, 1989).

검색어

환대

아브라함

소돔 사람

기브아

동성애

Understanding the Bible within the Multi- Cultural Society

-A Study on Hospitality in the Old Testament -

Pong Dae Im

Lecturer at the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Graduate Theological Union, Ph.D.

This study addresses the topic of hospitality in the Old Testament, particularly in an attempt to respond to the steadily increasing rate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our society and the subsequent need to understand how to treat them hospitably in our community.

Hospitality, a practice of receiving and extending friendship to strangers, is a highly esteemed virtue in the Old Testament. The concept of hosting originated with the need for aid when being away from home. A stranger is welcomed into an encampment, village, or town and is given a new status as a guest, thereby removing the hostile overtones associated with the

www.kci.go.kr

different and the unfamiliar.

While Gen 18:1–8 provides an example of hospitality, the stories of Sodom(Gen 19) and Gibeah(Judg 19) accuse violations of the communities' obligations to provide hospitality. In Gen 19, the Sodomites treat Lot as an alien and disregard him, in Judg 19, old man which treats the Levite hospitably is a resident alien just as Lot was in Sodom. Resident aliens – or 'sojourners' – were not qualified to function as hosts.

In both instances the host, who is responsible to protect the guest, is a resident alien, while the citizens from the community attempt to rape the guest. The tragedy comes in making resident aliens serve as a community's hospitable party, which is not respected by the men of the city. As a result, the inhabitants of Sodom and Gibeah violate the law of hospitality by harming the guests.

Many similarities between Gen 19 and Judg 19 suggest that Israel is always in danger of becoming like Sodom(cf. Isa 1:10; 3:9) and hence liable to a punishment like that of Sodom(cf. Deut 29:23–24). These biblical cases help us to understand the fact that we need to treat the multi-cultural families increasing in number in our society, not as the marginal groups, but as the full members of our community.

Key words

Hospitality

Abraham

Sodomites

Gibeah

homosexuality

- 투고일: 2012년 6월 30일
- 심사일: 2012년 7월 23일
- 게재 확정일: 2012년 7월 25일

www.kci.go.kr